

元 曉 大 師

—텔레비를 보면서—

聖俗이 같다는 元曉大師가
텔레비에 텔레비에 들어오고 말았다
배우 이름은 모르지만 大師는
大師보다도 배우에 가까웠다

그 배우는 食母까지도 싫여하고
신이 나서 보는 것은 나 하나뿐이고
元曉大師가 나오는 날이면
익살맞은 어린 놈은 活劇이 되나 하고

조바심을 하고 食母아가씨나 가게
아가씨는 연애가 되나 하고
애타하고 元曉의 염불소리까지도
있고—— 罪를 짓고 싶다

돌부리를 차듯 서투른 元曉로
분장한 놈이 돌부리를 차고 풀을
뽑듯 罪를 짓고 싶어 罪를
짓고 얼굴을 붉히고

罪를 짓고 얼굴을 붉히고——
聖俗이 같다는 元曉大師가
텔레비에 나온 것을 뉘우치지 않고
春園 대신의 原作者가 된다

宇宙時代의 마이크로웨이브에 탄
元曉大師의 敏活性 바늘 끝에
묻은 罪와 먼지 그리고 模倣
술에 취해서 쓰는 詩여

텔레비 속의 텔레비에 취한
아아 元曉여 이제 그대는 낡지

않았다 他動的으로 自動的으로
났지 않았고

元曉 대신 元曉 대신 마이크로가
간다 <제니의 꿈>의 허깨비가
간다 연기가 가고 연기가 나타나고
魔術의 元曉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제니>와 大師가
왔다 갔다 앞뒤로 좌우로
왔다 갔다 웃고 울고 왔다 갔다
파우스트처럼 모든 象徴이

象徴이 된다 聖俗이 같다는 元曉
大師가 이런 機械의 영광을 누릴
죽이야 <제니>의 덕택을 입을
죽이야 <제니>를 <제니>를 사랑할 죽이야

긴 것을 긴 것을 사랑할 죽이야
긴 것 중에 수어 있는 것을 사랑할 죽이야
제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긴 것 가운데
있을 죽이야

그것을 찾아 보지 않을 죽이야 찾아 보지
않아도 있을 죽이야 긴 것 중에는
있을 죽이야 어렵히 어렵히 있을
죽이야 나도 모르게 있을 죽이야

<遺稿>

1968·3·1

性

그것하고 하고 와서 첫번째로 여편네와
하던 날은 바로 그 이튿날 밤은
아니 바로 그 첫날 밤은 반시간도 너머 했는데도
여편네가 만족하지 않는다

그년하고 하듯이 햇바닥이 떨어져 나가게
물어 제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다부지게 해줬는데도
여편네가 만족하지 않는다

이게 아무래도 내가 저의 섹스를 概觀하고
있는 것을 아는 모양이다
똑똑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느껴지는
모양이다

나는 섬적해서 그전의 둔감한 내 자신으로
다시 돌아간다
憐憫의 순간이다 恍惚의 순간이 아니라
속아 사는 憐憫의 순간이다

나는 이것이 쏟고난 뒤에도 보통 때보다 완연히
한참 더 오래 끌다가 쏟았다
한번 더 고비를 넘을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지독하게 속이면 내가 곧 속고 만다

<遺稿>

1968·1·19

死 靈

……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黃昏도 저 돌벽 아래 雜草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高요함도 이 高요함도

그대의 正義도 우리들의 纖細도
行動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郊外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詩集「달나라의 장난」(1959)에서

푸른 하늘을

푸른 하늘을 制壓하는
노고지리가 自由로왔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詩人の 말은 修正되어야 한다

自由를 위해서
飛翔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제서 自由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革命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革命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1960. 6. 15

그 방을 생각하며

革命은 안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四肢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革命은 안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狂氣——
失望의 가벼움을 財産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후시나 歷史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財産으로 삼았다

革命은 안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意志의 殘滓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배진 냄새만 되살아 났지만

방을 잃고 落書를 잃고 期待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없이 풍성하다

1960. 10. 30

「누이야 장하고나!」

(新歸去來 6)

누이야

諷刺가 아니면 解脫이다

너는 이 말의 뜻을 아느냐

너의 방에 걸어 놓은 오빠의 寫眞

나에게는 「동생의 寫眞」을 보고도

나는 몇 번이고 그의 鎭魂歌를 피해 왔다

그전에 돌아간 아버지의 鎭魂歌가 우스꽝스러웠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그 寫眞을 十년만에 꼼꼼히 正視하면서

이내 거북해서 너의 방을 뛰쳐 나오고 말았다

十년이란 한 사람이 준 傷處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歲月이다

누이야

諷刺가 아니면 解脫이다

네가 그렇고

내가 그렇고

네가 아니면 내가 그렇다

우스운 것이 사람의 죽음이다

우스워 하지 않고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죽음이다

八月의 하늘은 높다

높다는 것이 이렇게 웃음을 자아낸다

누이야

나는 분명히 그의 앞에 절을 했노라

그의 앞에 엎드렸노라

모르는 것 앞에는 엎드리는 것이

모르는 것 앞에는 무조건하고 숭배하는 것이

나의 習慣이니까

동생뿐이 아니라

그의 죽음뿐이 아니라

혹은 그의 失蹤뿐이 아니라

그를 생각하는

그를 생각할 수 있는
너까지도 다 함께 숭배하고 마는 것이
숭배할 줄 아는 것이
나의 忍耐이니까

「누이야 장하고나!」
나는 쾌활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다
이 광대한 여름 날의 차잡한 숲속에
홀로 서서
나는 突風처럼 너한테 말할 수 있다
모든 산봉우리를 걸쳐온 突風처럼
당돌하고 시원하게
都會에서 달아나온 나는 말할 수 있다
「누이야 장하고나!」

1961. 8. 5

轉 向 記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朝鮮한테는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도 얼마전까지는
흰 원고지 뒤에 낙서를 하면서
그것이 그럴듯하게 생각돼서
朝鮮을 내심으로도 입밖으로도 두둔했었다
——당연한 일이다

朝鮮을 생각하면서 나는 치질을 앓고 피를 쏟았다
일주일 동안 단식까지 했다
단식을 하고 나서 죽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떡국을 먹었는데
새삼스럽게 소화불량증이 생겼다
——당연한 일이다

나는 지금 일본 시인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자연스러운 轉向을 한 데 놀라면서
이 이유를 생각하려 하지만

그 이유는 詩가 안된다
아니 또 詩가 된다
——당연한 일이다

「히시야마·슈우조오」의 낙엽이 생활인 것처럼
五·一六 이후의 나의 생활도 생활이다
복종의 미덕!
思想까지도 복종하라!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필시 웃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지루한 轉向의 告白
되도록 지루할수록 좋다
지금 나는 자고 깨고 하면서 더 지루한
中共의 욕을 쓰고 있는데
치질도 낫기 전에 또 술을 마셨다
——당연한 일이다

1962. 1(?)

巨大한 뿌리

나는 아직도 앓는 법을 모른다
어찌다 셋이서 술을 마신다 둘은 한 발을 무릎 위에 얹고
도사리지 않는다 나는 어느새 南쪽식으로
도사리고 앓았다 그럴 때는 이 둘은 반드시
以北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앓음새를 고친다
八·一五 후에 김병욱이란 詩人은 두 발을 뒤로 꼬고 언제나 일본
여자처럼 앉아서 변론을 일삼았지만
그는 일본대학에 다니면서 四年 동안을 제철회사에서 노동을 한
強者다

나는 이사벨·버드·비숍女史와 연애하고 있다 그녀는
1893년에 朝鮮을 처음 방문한 英國王立地學協會會員이다
그녀는 인경전의 종소리가 울리면 잠안의
남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갑자기 부녀자의 世界로
화하는 劇的인 서울을 보았다 이 아름다운 시간에는
남자로서 거리를 無斷通行할 수 있는 것은 교군군,

내시, 外國人의 종놈, 官吏들뿐이었다 그리고
深夜에는 여자는 사라지고 남자가 다시 오입을 하러
濶步하고 나선다고 이런 奇異한 慣習을 가진 나라를
세계 다른 곳에서는 본 일이 없다고
天下를 호령한 閔妃는 한번도 장안 外出을 하지 못했다고..

傳統은 아무리 더러운 傳統이라도 좋다 나는 光化門
네거리에서 시구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寅煥네
처가집 옆의 지금은 堆立한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양젓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패라다이스처럼 생각한다
버드·비숍女史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歷史는 아무리
더러운 歷史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늦주발보다도 더 쟁쟁 울리는 追憶이
있는 한, 人間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비숍女史와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進歩主義者와
社會主義者는 네에미 ×이다 統一도 中立도 개 ×이다
隱密도 深奧도 學究도 體面도 因習도 治安局
으로 가라 東洋拓殖會社, 日本領事館, 大韓民國官吏,
아이스크림은 미국놈 ×대강이나 빨아라 그러나
요강, 망건, 장죽, 種苗商,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
피혁점, 금보, 애꾸, 애 못냥는 여자, 無識쟁이,
이 모든 無數한 反動이 좋다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는
——第三人道橋의 물속에 박은 鐵筋기둥도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줌벌레의 숨털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怪奇映畫의 맘모스를 연상시키는
까치도 까마귀도 응접을 못하는 시꺼먼 가지를 가진
나도 감히 想像을 못하는 거대한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1964. 3(?)

말

나무뿌리가 좀 더 깊이 겨울을 향해 가라앉았다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이 가슴의 動悸도 기침도 寒氣도 내것이 아니다
이 집도 아내도 아들도 어머니도 다시 내것이 아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을 하고 걱정하고
돈을 벌고 싸우고 오늘부터의 할 일을 하지만
내 생명은 이미 말기어진 생명
나의 秩序는 죽음의 秩序
은 세상이 죽음의 價値로 변해 버렸다

익살스러운 만치 모든 距離가 단축되고
익살스러운 만치 모든 질문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告해야 할 너무나 많은 말을 갖고 있지만
세상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無言의 말
이 때문에 아내를 다루기 어려워지고
자식을 다루기 어려워지고 친구를
다루기 어려워지고
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나는 입을 봉하고 있는 셈이고
무서운 無誠意를 자행하고 있다

이 無言의 말
하늘의 빛이요 물의 빛이요 偶然의 빛이요 偶然의 말
죽음을 꿰뚫어는 가장 무력한 말
죽음을 위한 말 죽음에 섬기는 말
고지식한 것을 제일 싫여하는 말
이 萬能의 말
겨울의 말이자 봄의 말
이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1964. 11. 16

미역국

미역국 위에 뜬 기름이
우리의 歷史를 가르쳐 준다 우리의 歡喜를
풀 속에서는 노란 꽃이 지고 바람소리가 그릇 깨지는
소리보다 더 서걱거린다——우리는 그것을 永遠의
소리라고 부른다

해는 淸教徒가 大陸 東部에 상륙한 날보다 밝다
우리의 재(灰), 우리의 서걱거리는 말이여
人生과 말의 간결——우리는 그것을 戰鬥의
소리라고 부른다

미역국은 人生을 거꾸로 걸게 한다
그래도 우리는
三十대보다는 약간 젊어졌다 六〇이 넘으면 좀 더
젊어질까 機關砲나 옛목처럼 人生도 人生의 부분도
통째 움적인다——우리는 그것을 貧窮의
소리라고 부른다

오오 歡喜여 미역국이여 미역국에 뜬 기름이여 구슬픈 祖上이여
가뭇의 백성이여 退溪든 丁茶山이든 수염난 영감이면
福德房 사기꾼도 도적놈 地主라도 좋으니 제발 순조로워라
自稱 藝術派詩人들이 아무리 우리의 能辯을 욕해도——이것이
歡喜인 걸 어떻게 하라

人生도 人生의 부분도 통째 움적인다——우리는 그것을
結婚의 소리라고 부른다

1965. 6. 2

여 름 밤

地上의 소음이 번성하는 날은
하늘의 소음도 번쩍인다
여름은 이래서 좋고 여름 밤은
이래서 더욱 좋다

소음이 시달린 마당 한구석에
철 늦게 핀 여름 장미의 흰 구름
소나기가 지나고 바람이 불 듯
하더니 또 안 불고
소음은 더욱 번성해진다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날
소음이 더욱 번성하다 남은 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던 날
소음이 더욱 번성하기 전 날
우리는 언제나 소음의 二층

땅의 二층이 하늘인 것처럼
이렇게 人情의 하늘이 가까와진
일이 없다 남은 불쌍히 생각함은
나를 불쌍히 생각함이라
나와 또 나의 아들까지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다 남은 날
땅에만 소음이 있는 줄만 알았더니
하늘에도 천동이,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없는 더 큰 천동이 있는 줄
알았다 그것이 먼저 있는 줄 알았다

地上의 소음이 번성하는 날은
하늘의 천동도 번쩍인다
여름 밤은 깊을수록
이래서 좋아진다

1967. 7. 27

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밭목까지
밭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遺稿>

1968. 5. 29